

관람 안내

관람 시간 10:00 - 18:00

입장 시간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

휴관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개관, 다음날 휴관)

관람료 무료

발행인 김갑수 포항시립미술관장

발행처 포항시립미술관

전시기획 김한아 학예연구사

교육기획 최혜지 문화예술교육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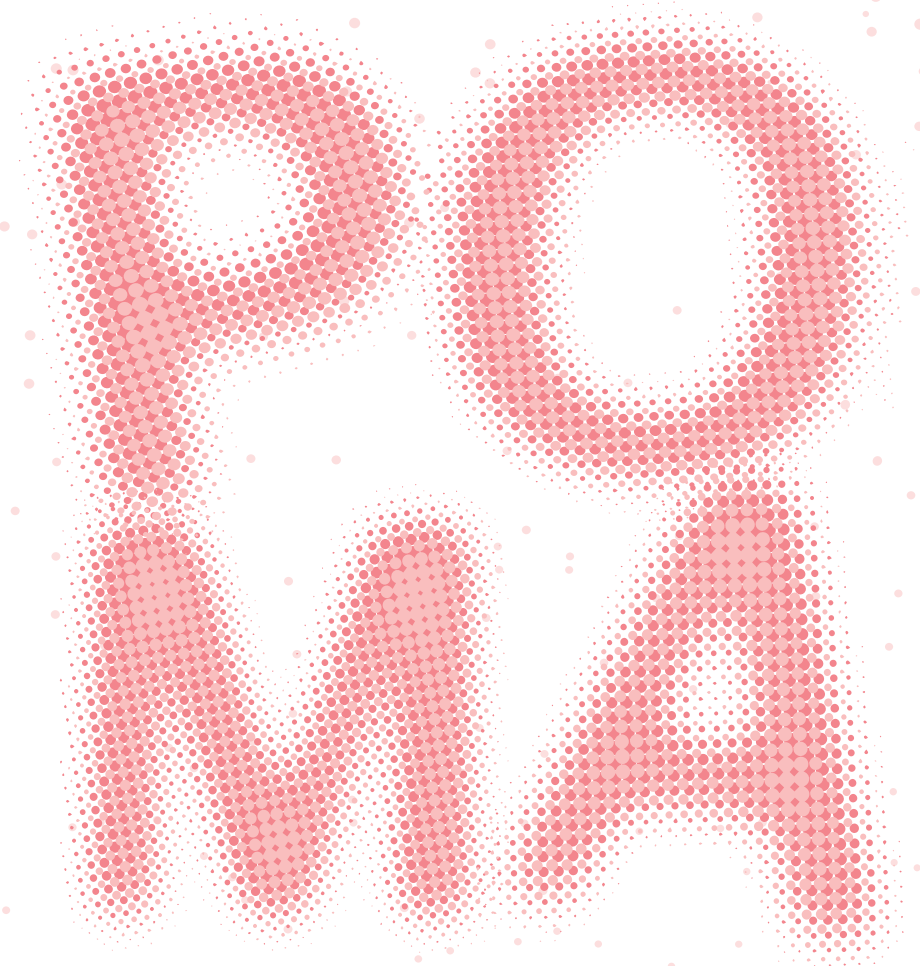
교육기획지원 김경윤 문화예술교육인턴, 이수진 학예인턴, 조세진 행정인턴

디자인 신성AD&C

© 2021. **poma** 포항시립미술관 All Rights Reserved.

본 워크북에 실린 글과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76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길10 T. 054.270.4700 F. 054.252.0256



2021. 9. 14. - 2022. 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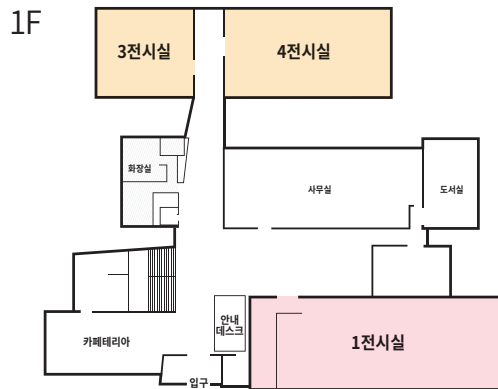
포항시립미술관

2021 하반기 전시 감상 프로그램 어린이 워크북

신화를 담다: 꺼지지 않는 불꽃

Capturing Mythology:
The Flame That Never Dies Out

전시는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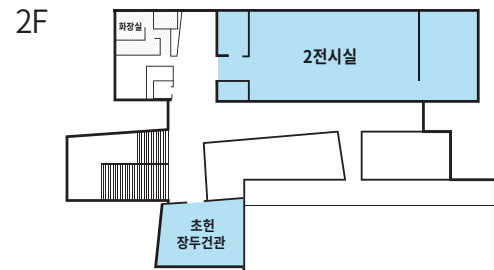
삶의 서사

(우리 삶의 이야기)

2전시실, 초현 장두건관

도시·사회의 서사

(우리가 사는 도시의 이야기)



3, 4전시실

인물의 서사

(훌륭한 영웅들의 이야기)

포항은 우리나라 최고의 철강도시 중 하나예요.






수많은 인물들이 불굴의 도전정신과 사명감으로 세계 최고의

제철소를 세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노력했어요.

이 전시는 그들이 이루어낸 철강신화를 예술작품을 통해 새롭게 바라보며 ‘영웅’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전시예요.

*제철 : 철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 철을 뽑아내는 일

잠깐! 관람시 함께 지켜주세요!

-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  작품은 손대지 말고 눈으로만 봐주세요.
-  전시실 안에서는 작은 소리로 이야기 해주세요.
-  미술관 안에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돼요.
-  질서를 지켜 예의 바르게 관람해 주세요.

1
2
3
4
5


화면에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설악산의 모습이 보이나요?
 이 작품은 소설가 황석영이 쓴 「입석부근」의 내용이 담겨있어요.
 소설 속 이야기는 네 명의 친구들이 암벽등반을 하며 겪는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과정이 담겨있어요. 웅장한 배경음악과 함께
 거센 눈바람이 휘날리는 빙벽 위로 소설책에 나온 문장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중 “**괜찮아?**”라고 반복적으로 묻는 장면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立
石
附
近


장민승 <입석부근>, 2015-2017, 단체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49분 14초,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강상 Tip 웅장한 배경음악에 귀 기울이며 화면 속에 빠져들어 보세요!



 이 작품에는 “**괜찮아?**”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라면 어떤 마음이 들것 같나요?

 친구나 가족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 괜찮은지 안부를 물어본
 경험이 있나요? “**괜찮아?**” 스티커를 붙여 보세요.

 작품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 또는 나의 기분을 단어나 글로
 표현해 보세요.

제철소의 밤

강은구 작가는 철을 재료로 도시의 밤 풍경을 표현하는 작가예요. <제철소의 밤>은 ‘철’이라는 물질 속에 개인의 역사나 정서를 담아내는 작품이에요. 차갑고 딱딱한 철을 만드는 공장의 야경을 환상적인 분위기로 표현했어요. 작가에게 있어 철은 금속 재단 일을 하시는 아버지와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친숙한 재료예요. 납작한 철판이 입체가 되고 거기에 빛이 더해져 **도시의 풍경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바라보게 해요.**



강은구 <제철소의 밤>, 2009, 스테인리스 스틸, 조명, 90x230x15cm, 포항시립미술관 소장

강상 Tip 멀리서 바라본 후 가까이 다가가 바라보세요. 차이를 느껴 보세요.



포항제철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모두가 잠든 밤, 포항제철소 공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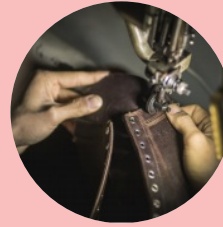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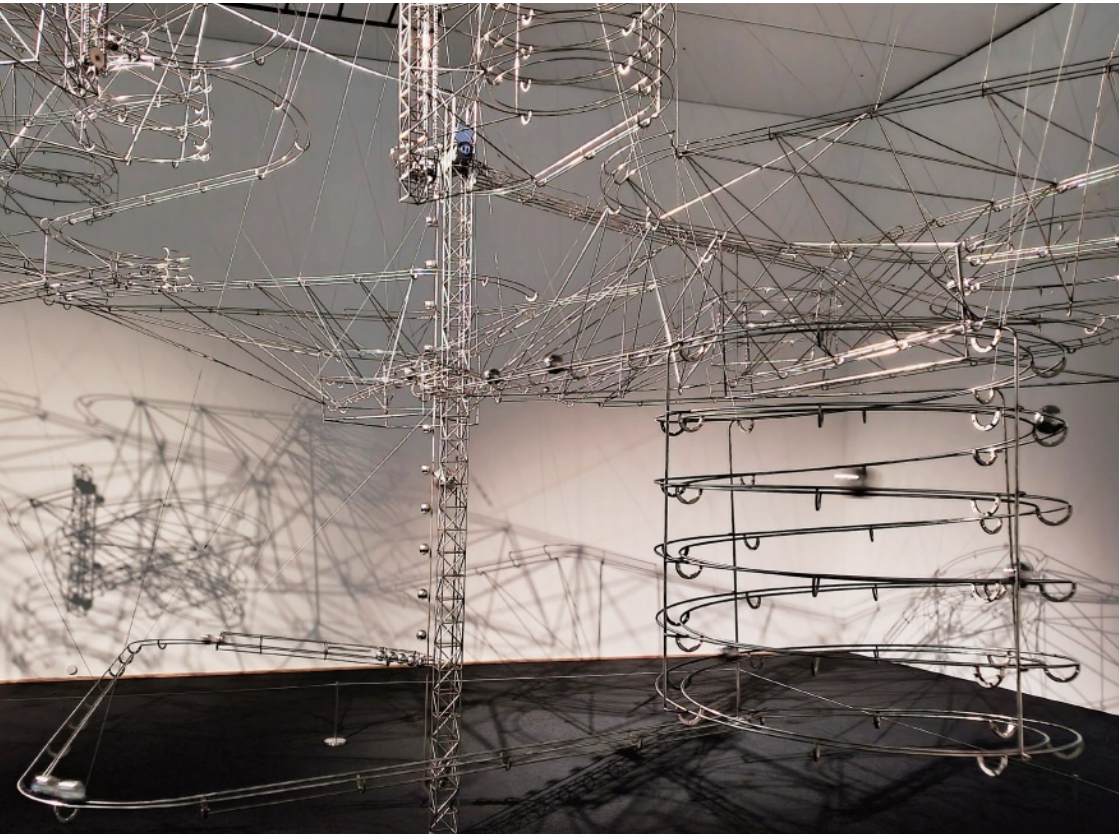


나만의 느낌으로 제철소의 밤 풍경을 표현해보세요.



공간지도

이 작품의 제목은 <공간지도>예요. 레일을 따라 수많은 쇠구슬이 움직이고 있어요. 끊임없이 생산되고 사라지는 사회 구조 속 멈추지 않는 도시의 모습과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자신의 일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이에요. 도시나 건축물, 공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도 해요. <공간지도>를 만든 이창운 작가는 작품을 통해 “왜 우리는 끝없이 반복되는 삶을 사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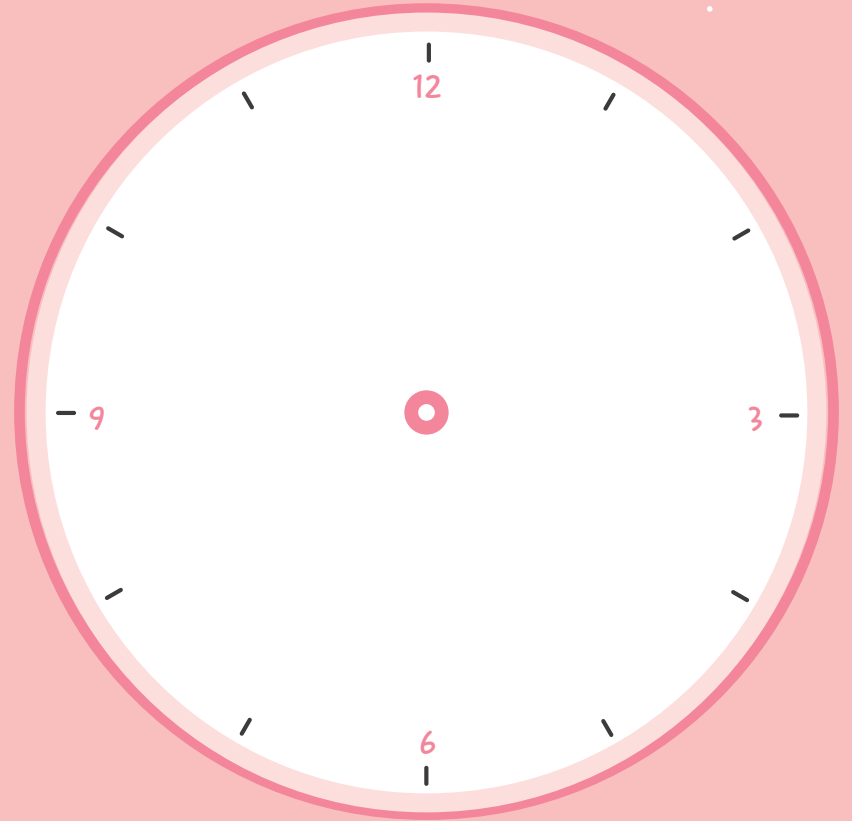


이창운 <공간지도>, 2021, 스테인리스 스틸, 동력장치, 가변크기

강상 Tip 각 구역에서 굴러가는 쇠구슬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감상해 보세요.



❶ <공간지도> 작품의 쇠구슬은 정해진 시간과 속도 그리고 거리에 따라 계획적으로 일정하게 굴러가고 있어요. 나의 하루도 쇠구슬처럼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나요? 나의 하루를 생각해 보고 아래의 시간표에 나의 일상을 기록해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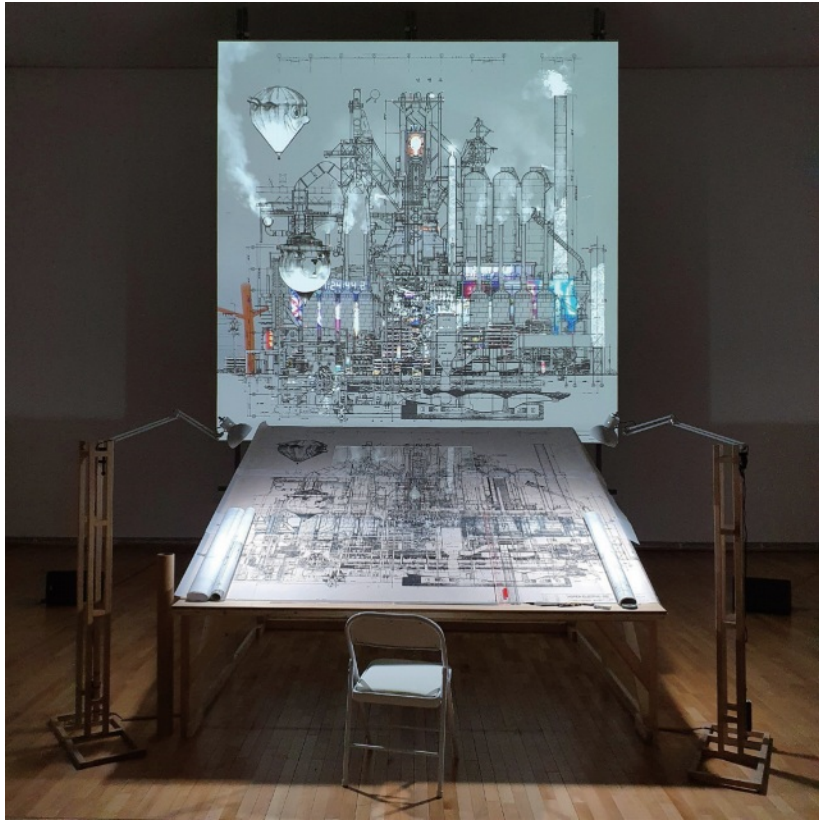


❷ 반복 되는 일상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포항제철+당인리 발전소

권민호 작가는 한국 1970-80년대 ***산업화의 상징물**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리는 작가예요. 공장, 기계, 건축설계도 같은 밑그림 위에 디지털 사진을 콜라주하고 목탄과 연필로 그림을 그린 후 영상과 소리를 입혀 작품을 제작해요. 작가는 여러 겹의 드로잉을 하나로 결합시키기 위해 손으로 그린 드로잉을 복사, 스캔하고 다시 인쇄하는 과정을 거쳐요.

***산업화의 상징물** : 자동차, 공장, 배, 기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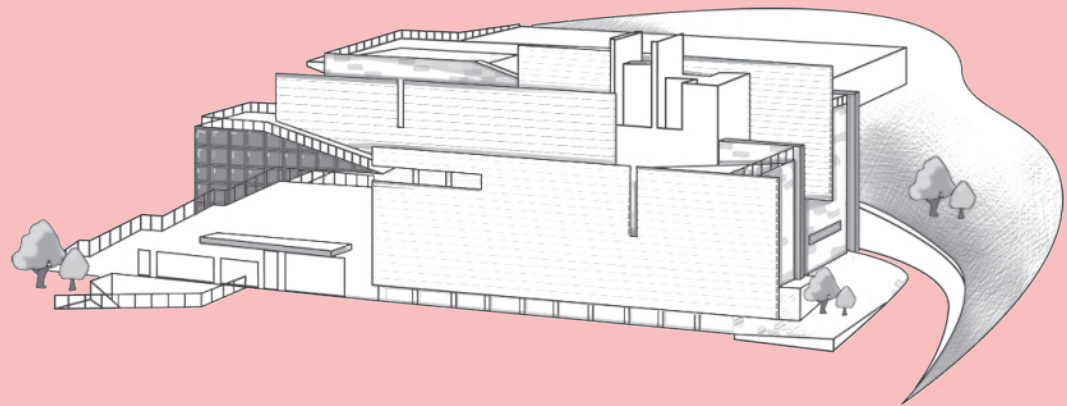


권민호 <포항제철+당인리 발전소>, 2019, 트레이싱지에 연필, 목탄, 포토 콜라주, 디지털 애니메이션, 프로젝션 매핑, 240x240cm(드로잉), 1080x1080px(영상), 400x400cm(스크린)

포항제철과 당인리 발전소는 한국 최초의 제철소와 화력 발전소예요. 이 두 공장에서는 무엇을 생산했을까요?

- ① 
배
- ② 
자동차
- ③ 
철
- ④ 
전화기
- ⑤ 
전기

작가는 공장 도면 위에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판, 네온사인 그리고 귀여운 캐릭터 풍선 등 상상을 더해 작품을 완성했어요. 우리도 작가님처럼 포항시립미술관 건물 위에 미술관과 관련된 상징물을 그리거나 스티커로 붙여보아요.



강상 Tip 영상 속 보여지는 움직임과 들려오는 소리를 입체적으로 감상해요. 🔍

아
무
니

단상 위에서 올라가서 박수 소리를 들어보았나요? 임봉호 작가의 <부드롭다> 작품은 삼각형의 단상과 3면의 박수 영상 그리고 박수 소리를 감상할 수 있어요. 단상 위에 올라가기 전 희미하게 들리던 박수 소리가 단상 위에 올라가면 누군가 바로 옆에서 나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처럼 크게 들려요. 그 순간 내가 무대에 선 주인공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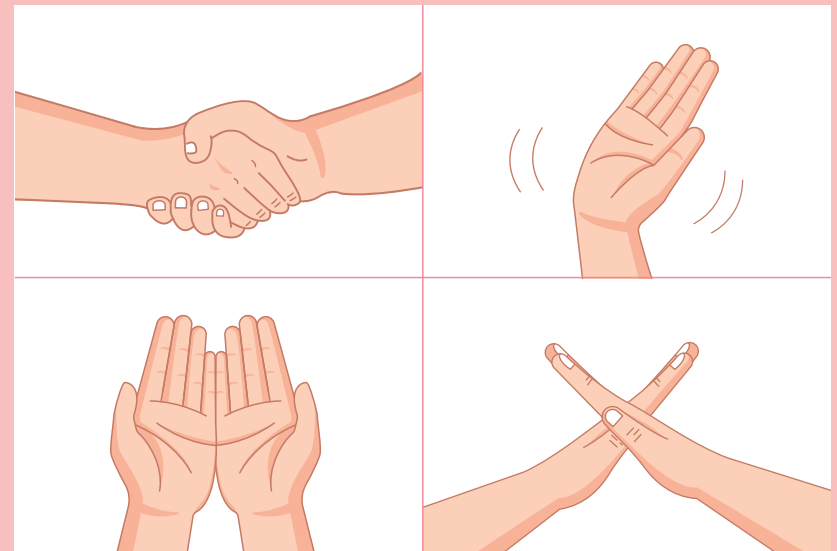


임봉호 <부드롭다>, 2019, 다채널 영상, 사운드, 설치, 가변크기

☉ 무대에서 박수를 받고 있는 당신! 무슨 이유로 박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박수를 받을 때 나의 기분은 어떠한가요?

☉ 누군가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면 그 대상은 누구이며,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아래 사진 속 손동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강상 Tip 직접 단상 위에 올라가 박수갈채를 받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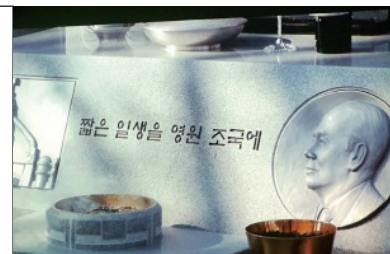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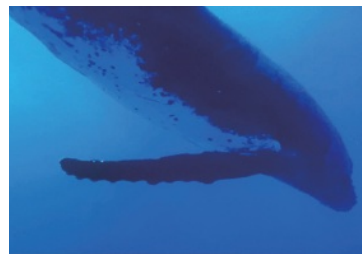


박경근 <철(鐵)의 꿈>, 2013, 3채널 비디오, 사운드, 13분, 가변크기, 포항시립미술관 소장

이 작품은 어두운 바닷속에서 잠을 자고 있던 고래가 스님이 연주하는 피리 소리에 잠을 깨면서 시작해요. 이윽고 들리는 북소리에 맞춰 고래는 푸른 물살을 가르며 신나게 헤엄을 치고, 철을 만드는 제철소의 뜨거운 용광로와 거대한 배를 만드는 조선소의 웅장한 모습들이 함께 이어지고 있어요.

이 작품은 철을 만드는 제철산업과 배를 만드는 조선업을 통해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려 한 할아버지 세대의 **꿈과 희망**, 그리고 **희생과 아픔**을 얘기하고 있어요. 작품의 중간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과 마지막에 등장하는 죽은 고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3분 동안 이어지는 멋진 화면을 감상하며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산업의 모습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상상해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요.

 나만의 상상력으로 빈칸을 채워 보세요. 그것을 그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상 Tip 3채널의 화면 속 장면들을 비교하며 감상해 보세요!



마지막 연설

〈마지막 연설〉 작품에는 포스코 설립자인 **故 박태준 명예회장님이 퇴직한 직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연설한 음성**이 담겨있어요.

설립 후 40년이 지난 2011년 어느 날 함께 일했던 직원들을 만나 그 시절을 떠올리며 그 당시의 감정을 음성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어요. 영상에는 포항제철 건설 당시의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등장해요. 박태준 회장과 함께 일한 직원들, 산업 노동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박태준 회장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제철보국의 신념으로 불가능할 것 만 같았던 제철소 건설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우리 시대의 영웅적 인물이에요.

*제철보국 : 철을 만들어 나라에 보답한다.



박경근 <마지막 연설>, 2014, 비디오, 사운드, 11분 7초, 가변크기, 포스코 갤러리 소장



“우리는 남들이 갖지 않는 특별한 것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연봉이나 복지보다 더 소중한 정신적 가치, 그것은 제철보국이었습니다. 기필코 회사를 성공시켜서 조국 근대화의 견인차가 되자는 투철한 사명 의식을 가슴에 품고, 실패하면 영일만에 빠져 죽자는 *'우향우'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열정, 우리의 그 헌신, 우리의 그 단결이 마침내 '영일만의 기적'을 창출하고 '영일만의 신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기적, 그 신화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 故 박태준의 생애 마지막 연설 2011년 9월 19일 -

*우향우 정신 : 만약 제철소 건설에 실패하면 다 같이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자는 신념으로 제철소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자는 마음.

위 글은 마지막 연설 중 일부예요. 이 연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어떤 마음으로 이 연설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나요? 골라 보세요.

- ① 과거가 그립고 슬프다 ② 성공을 이루어 감격스러워함
- ③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참 ④ 매우 화났다 ⑤ 피땀 흘린 노력과 희생에 대한 감사함

()번을 고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

.....

만약 내가 생애 마지막 연설을 한다면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어요?

박태준 회장은 철강왕, 철의 영웅, 근대화의 큰 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만약 내가 박태준과 같은 중책을 맡은 회장이라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상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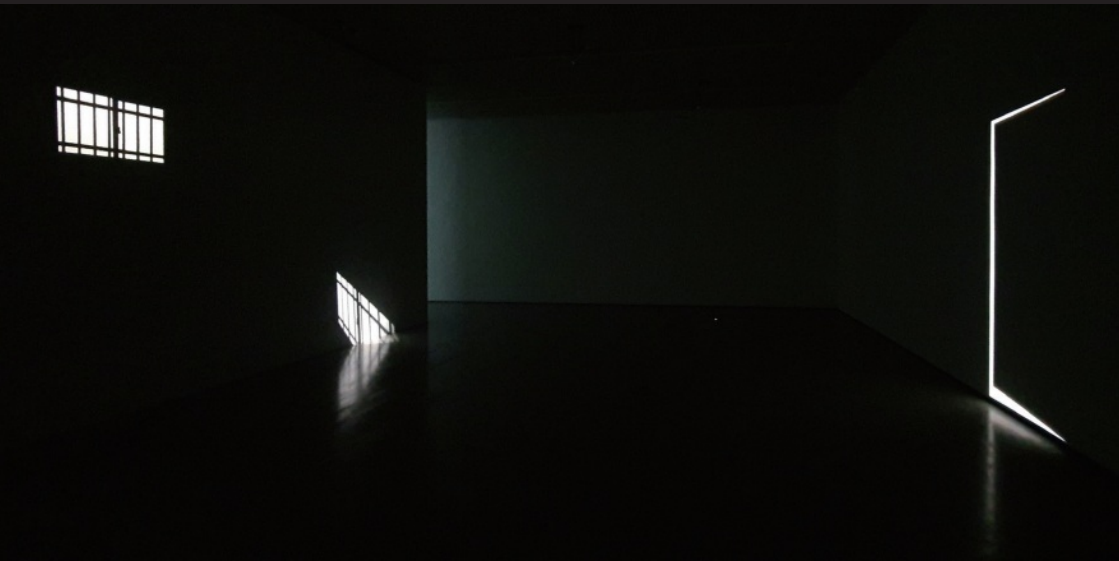
강상 Tip 말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어떤 심정인지 귀 기울여 보세요.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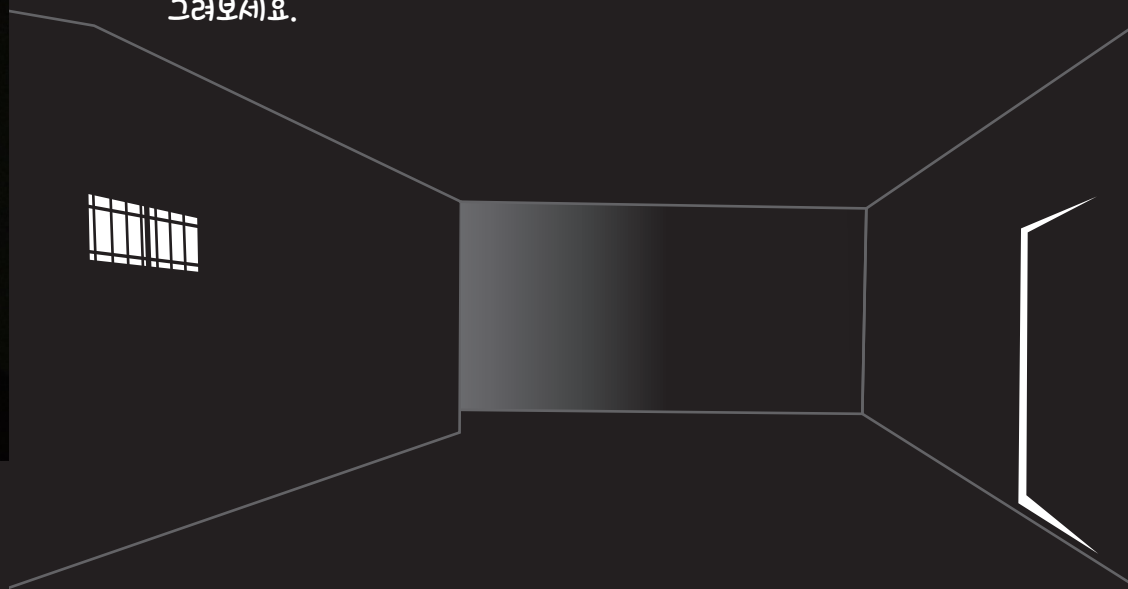
허수빈 작가는 ‘빛’을 재료로 작품을 만들어요.
 어두운 전시장에 조명을 이용해 창문과 문을 만들었어요.
 마치 진짜 창문과 문에서 새어 나온 햇빛이 우리를 끌어들이
 다른 세계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요.
 이 작품은 **과거나 현재, 기억, 가상의 세계를 빛으로
 연출한 작품**이에요. 앞서 감상한 작품 속 영웅들을
 이 작품을 통해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지 않나요?

허수빈 <빛>, 2017(2021), 로고라이트, 가변크기



● 작품을 보고 떠오르는 어떤 날의 기억이 있나요?
 빛의 문을 열고 과거로 향할 수 있다면 어떤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나요?

● 스며드는 빛과 공간을 이용해 내가 표현하고 싶은 나의 시간, 나의 기억을 그려보세요.



강상 Tip 손으로 빛을 담아보세요.

